

목회자의 창

이창 목사 // 갈릴리교회 원로목사, 기하성 중경총회장

바위 곁에서

목회를 시작한 후부터는 신행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전에는 산을 찾기를 좋아했다. 그것은 내 주위에 바다가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지금은 바닷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바다를 자주 찾는 것도 아니다. 바다를 자주 찾을 수 있으리만큼 여유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전에 내가 산을 자주 찾은 연유는 산에 미친 등반가와 같은 것이 아니었고 그저 막연히 산길, 산지락, 산의 숨결, 그런 것이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산 중에서도 산에 있는 바위를 좋아한다. 나는 산에 오르면 오래도록 바위 위에 앉아 있기도 하고 바위를 바라보기도 한다. 그리고 바위를 만져보며 그 촉감을 느껴보기도 한다.

나는 지금도 내 마음 속에서 바위를 사랑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위는 침묵하기 때문이다. 그 중후하고도 변함없는 침묵에 나는 압도당한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몇 억겁의 세월의 비람소리를 나는 않는다. 허뿔만 아니라 행동마저도 바위, 그는 침

묵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언제 보아도 영락없이 그 자리인 것이다. 불행 한마디 없고 허풍 한 번 하지도 않는다. 비 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표정 하나 변함이 없다. 연인들이 자기들 깔고 앉아서 진하게 속삭여도 털끝만큼도 투기하지 않는다. 마치 그는 목석같이 잠잠하고 말이 없다.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서 나는 이러한 위대한 침묵을 발견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바위를 돌로 갈라보면 그 가슴 속에는 온갖 은구슬, 금구슬과 같은 아름다운 감정들과, 뜨겁고도 순한 사랑과, 때로는 참으로 정당한 항변과, 진한 고통과 상처, 몸부림이 곧 폭발할 것처럼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결코 경솔하게 폭발하지 않으며, 천 년 침묵으로 그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바위인들 어찌 분통 터지는 일이 없으리라는 안으로 안으로 혼자 삭이며 도살당할 양말이 없다.

바위는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무표정으로 심오한

삶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 함부로 울고 웃고 나발거리지 않는다. 고독과 고통과 기쁨 피우도 초월하여 단지 묵묵히 눈감고 영원만을 살고 있을 뿐이다. 바위만이 푸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바위 등을 타고 수선을 피우는 재미 같은 인생들이 어찌 그의 삶을 짐작이나 할 수 있으랴 인간들은 바위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생각, 감정, 언어, 행동은 너무 혼하고 전하다. 비열하고 위선에 가득 차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구(詩句)에도 거짓이 고기비늘처럼 반짝인다. 인간의 가장 깨끗한 사랑도 탐욕이며, 인간의 가장 고상한 희생도 이기(利己)이다. 아무리 위대한 거인도 바위 앞에서 면연소하기 짝이 없다.

오랫동안 바위를 바라보노라면 언제나 아픔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

바위 곁에 서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목양시론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 언론회 대변인

약탈한 문화재는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G20 정상 회담이 열린 지난달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에 보관중인 외국정각 도서 297권을 한국에 대여(貸與)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는데 합의하였다.

이 문화재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강화도에서 약탈해 간 것으로, 약탈당한 지 144년이요, 환수운동을 벌인 지 19년만의 일이다. 아픈 과거 역사와 함께, 우리 문화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 하여, 국민들은 환영하였다.

그런데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사서들이, 한·불 정상이 합의까지 한 결정에 대하여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우리 문화재 돌려받기에 차질이 생기기 않을까 염려된다.

물론 이들 사서들이 직업 정신에 따라, 자기 나라에 140여 년 간 보관해 온 문화재에 대하여 일종의 애착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프랑스가 불법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간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세계는 티극에서 약탈한 유물에 대하여 그 나라에 돌려주는 것이 추세이다. 최근에 미국의 예일대는 100여

년 전에 마추픽추에서 발굴한 유물 4,000점을 페루에 돌려주기로 하였다. 또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이 집트에 3,000년 전의 유물 19점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지난 3월에는 영국이 이집트에서 가져간 25,000점의 유물을 돌려주기도 하였다. 일본도 한국에서 불법으로 반출해간 도서 150종을 반환키로 합의하였다.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이런 추세인데,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의 일부 사서들이 한국의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다행히 프랑스에서도 양식 있는 지식인들에 의하여, 한국의 문화재를 본국에 돌려주자는 운동이 제기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프랑스가 선진국으로써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라면 과거 불행했던 시절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강탈해 갔던 일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국가 정상 간에 약속한 문화재 반환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우리 정부와 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에서도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에 대한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한다.

한국교회 개혁 위해 총력 기울인다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15차 정기총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대표회장 양정섭 목사)는 지난달 29일(월) 관악구 봉천동 동진빌딩 11층 동진부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갖고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한 회기로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예정개혁총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정합동예합총회 총회장 노종관 목사의 대표기도 후 장 6장 9-13절 말씀을 예정합동예합총회 총무 정현 목사가

봉독하고, 예정정동총회 김병섭 목사의 선포언주 후 예정합동부흥총회 김관현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김 목사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말씀중심의 사람, 오직 하나님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 강조하고 축복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정남북총회 총회장 이석주 목사가 특별기도하고 이어서 '한기협 발전을 위하여' 예정합동선목총회 총회장 이병순 목사가 특별기도 한 후, 예정개혁교회총회 총회장 박형렬 목사의 축

도로 1부예배를 모두 마쳤다.

제2부 정기총회는 26개 가입교단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개회선언, 이사장 보고와 총무이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보고 및 회계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고, 신안건으로 예산결산안과 사업안을 전총대 회원의 만장일치 통과하였으며 감사는 김영의 목사를 유임하고, 이대용 목사를 선출하고, 선정직 임원은 이사회에서 임기만료 처리하고 이사회 주관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선임된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양정섭 목사, 이사 김관현 목사, 강희준 목사, 이석주 목사, 이재덕 목사, 인정태 목사, 양정은 목사, 박형렬 목사, 노종관 목사, 김동권 목사, 양정식 목사, 김인호 목사, 이영춘 목사, 문인섭 목사, 정서영 목사, 최정용 목사, 정인근 목사, 김연숙 목사, 서경숙 목사, 감사 김영의 목사, 이대용 목사 등이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위원회 위원장 : 김관현 목사 / 재정위원회 위원장 : 정서영 목사 교육위원회 위원장 : 박형렬 목사 / 인권위원회 위원장 : 이승권 목사 통일위원회 위원장 : 이희두 목사 / 선교위원회 위원장 : 노종관 목사 사비대책 위원장 : 이석주 목사

신안건 토의에서는 37개단체(사단법인 개혁교단 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 총재 김관현 목사, 사단법인 개신교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가 연합하여 신년하례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세계문화회 한국발기인대회

글로벌 국민화합, 세계평화 소통



세계문화회(이사장 양정부 목사) 한국발기인대회가 지난달 29일(월)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홀에서 열려 회원들의 창작활동 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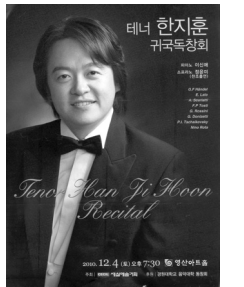
미국법인 세계문화회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김희인 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어 국민의례, 자랑스런 한국인회 이준상 회장의 내빈소개, 발기인 대표 양정부 목사의 인사말, 류한상 시인의 문화현장 낭독, 장부길 세계문화회 이사의 환영사, 김우희 복음가수의 축하, 예정연 이사장 조성훈 목사의 격려사, 한국문협 소설분과 김수년 이사의 축하, 세계문화회 이사 민승국 목사의 축사, 시인 국내현, 박일소, 김복례 님의 축서시 낭송 등의 순으로



대회를 이어갔다.

세계문화회는 대회를 갖고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으로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 시국에서 문인들은 글로벌로 진전된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더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전해서 국민화합, 세계평화의 소통을 시키는데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테너 한지훈 귀국독창회



감미로운 미성의 테너 한지훈 귀국독창회가 4일(토) 저녁 7시 30분 영신아트홀에서 열린다.

테너 한지훈 씨는 서울 경기고등학교와 서울 예술대학 연극과, 경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 Pietro Mascagni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번 독창회에서는 헨델의 '그리운 나무 그늘', 차이코프스키의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아레' 등 9곡이 연주된

다. 피아노 연주에는 그의 평생 반려자인 피아니스트 이신애가 맡는다. 테너 한지훈은 중견 탤런트 한인수 장로의 아들이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2011년도 시무예배 및 제59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2011년도 시무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3. 본 교단 제59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1) 일시 : 2011년 1월 6일(목) 13시(낮 12시 식사)
- 2) 장소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90-3 TEL. 02-2675-5181~3)
- 3) 참석범위 : 정책위원, 각 위원장, 각 국장, 전 실행위원(총회 임원, 상임운영위원, 지방회장, 기관장, 교단자문위원장)

2010년 12월 4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THE ASSEMBLIES OF GOD, KOREA

대표총회장	목사 조용목
교단·국내총회장	목사 김상용
국제총회장	목사 배진기
부총회장	장로 이상철
총서	목사 김홍성
	목사 윤기석